

ESG/ 지주업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이채리 RA cherry.lee@daishin.com

주주가 얻은 수익과 회사가 돌려준 몫

- 이번 반기보고서부터 이사·감사 보수와 총주주수익률 비교 공시
- 총주주수익률은 주주가 얻은 수익, 총주주환원율은 회사가 돌려준 몫
- 자기주식 소각 2년 만에 4배, 총주주환원율은 하반기에 더 높아질 전망

이번 반기보고서부터 이사·감사 보수와 총주주수익률 비교 공시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이사·감사의 보수를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TSR)과 같은 표에 놓고 비교 공시하도록 했고, 금융감독원은 2026년 4월 이러한 기재 서식을 구체화했다. 올해 반기보고서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적용한 첫 회차다.

금융위원회가 선진 사례로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4개 사업연도의 실현보수와 총주주수익률을 나란히 공시하여 주가와 연동된 추이를 보였다.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SK 하이닉스와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이와 같은 추이가 확인된다.

총주주수익률=(기말주가-기초주가)+주당배당금)/기초주가×100

vs. 총주주환원율=(배당총액+자사주 소각액)/지배주주귀속순이익)

총주주수익률과 총주주환원율은 측정 대상이 다르다. 총주주수익률은 주주가 얻은 수익이며, 총주주환원율은 회사가 주주에게 돌려준 몫이다.

코스피 200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액은 2024년 10조 768억원에서 2026년 40.5조원으로 2년 만에 4배 증가했다. 또한 전년과 비교하면 8월 21일까지 집행된 39.9조원만으로도 2025년 전체 소각금액 19.5조원의 2배를 넘어섰다. 하반기 중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이어질 것을 감안할 때, 총주주환원율은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커버리지 7개 지주회사의 총주주수익률과 총주주환원율

기업명	총주주수익률 (%)			총주주환원율 (%)		
	2024	2025	2026 반기	2024	2025	2026E
SK	-24.4	99.6	224.5	n/a	27.3	5.2 (45.3)
HD 현대	31.0	143.0	7.0	50.0	29.4	10.8
두산	177.5	195.5	95.7	n/a	98.3	14.9
LG	-12.6	16.4	20.6	81.6	97.5	64.8
한화	10.4	205.7	미기재	8.5	20.5	74.3
CJ	8.2	76.9	-10.1	86.1	62.3	27.8
효성	2.3	155.2	52.8	15.9	25.3	24.0

주) SK 괄호는 2027년 1월 소각 확정분 4조 8,343억원 반영치. 한화는 당기 주당배당금 미확정으로 미기재.
'n/a'은 순이익 0 이하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 제도가 바뀌었다

이번 반기보고서가 제도 시행 첫 회차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의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임원보수 공시 체계를 개편했다. 핵심은 이사·감사의 보수를 영업이익과 총주주이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 등 성과지표와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4월 기재 수준을 구체화했다. “해당 성과지표를 선정한 이유 및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지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및 기존에 사용한 지표값을 함께 제시”하라는 요구다. 2026년 8월 제출된 반기보고서는 이 제도가 적용된 첫 정기보고서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례가 보여주는 지향점

4개 사업연도의
실현보수와 TSR 공시

한편 이러한 제도 개편의 배경을 “미국의 경우 보수와 재무성과(총주주이익률 등)와의 상관관계를 시계열 분석, 동종회사와 비교 등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진 사례로 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대표이사(PEO)와 나머지 등기임원(non-PEO NEO) 평균의 실현보수(Compensation Actually Paid, CAP), 마이크로소프트 TSR, 동종그룹(Peer Group) TSR을 통해 최근 4개 사업연도 추세를 비교할 수 있게 했다. 핵심은 경영진이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이 주주가 얻은 수익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가, 그리고 그것이 업종 전체의 흐름 덕분인가 아니면 이 회사만의 성과인가이다.

CAP는 약정 보수가
아니라 실현 보수

CAP의 핵심은 부여 시점 공정가치가 아니라 연말 시가로 재평가한 주식보상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주가가 오르면 CAP가 늘고, 주가가 내리면 이미 부여된 보상의 가치도 함께 줄어든다. 보수와 주주가치를 같은 자로 재는 장치다.

한국 공시 항목으로
CAP 추출 가능

한국 서식에는 CAP라는 단일 항목이 없다. 그러나 CAP의 두 구성요소는 이미 별개의 표에 존재한다. ①실현 보수는 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그 외 주식기준보상 지급액이다. ②시가평가분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잔액기준)’ 중 시장가치로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 각 사업연도말 종가”로 정의되었다. 이 둘을 더한 미국 CAP와 동일한 구조의 시계열이 만들어진다. 개인별 공시가 보수 5억원 이상자로 한정되는 점도 미국의 PEO, NEO 한정 공시와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다. 다만 퇴직소득은 분리해야 한다. 성과와 무관한 일회성 거액이 시계열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이번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 TSR 공시

○ (개선)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과 임원 전체 보수총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 또는 그래프 등으로 기재

* Total Shareholder Return: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 100

【(예시)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서식 개선안】

사업 연도	이사 보수총액	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	감사 보수총액	감사 1인당 평균 보수액	총주주 수익률	영업이익	기타
20XX년							
20XX년							
20XX년							

- 최근 3년간* 보수 전체현황과 세부 보수내역을 구분하여 표로 기재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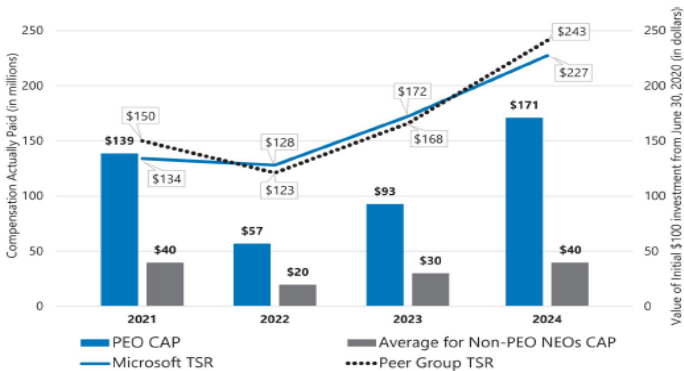
* 현재는 당해연도 보수총액 요약표만 공시

** 예) 보수의 종류를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외), 퇴직소득 등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마이크로소프트 성과연동 보수 공시 사례

Compensation Actually Paid vs. Microsoft TSR vs. Peer Group TSR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1. 미국 CAP과 한국 반기보고서 공시 항목의 대응

구분	미국 (SEC Item 402(v))	한국 반기보고서 대응 항목
① 실현 보수	Summary Compensation Table Total	「이사·감사 전체의 소득 종류별 보수 지급 현황」의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그 외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② 시가평가	Year-end fair value of unvested awards	「보수 5억원 이상 개인별 보수현황」의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 각 사업연도말 종가)
공시 단위	PEO 및 non-PEO NEO 평균	보수 5억원 이상 개인별 + 연동표의 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I . Best Practice

혼동될 수 있는 지표를 자발적으로 개선한 사례

총주주수익률(TSR)은 주가 변동과 배당을 합한 주주의 총수익률이고, 총주주환원율은 이익 중 얼마를 배당·자사주로 돌려줬는지를 나타내는 별개 지표다. 이 두 지표를 구분해 각주로 병기한 곳이 현대자동차와 유한양행이다. 현대자동차는 총주주환원율의 산정 방식을 "{배당총액+자사주 매입·소각액} / 지배주주귀속순이익"으로 각주에 명시하고 당기 27%, 전기 35%, 전전기 30%라는 실제 수치까지 함께 공시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 표기의 가치는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배당·자사주 정책을 보고 종목을 선별하는 국면에서 연동표의 TSR을 환원율로 오독하지 않도록 한 것은, 제도가 정착되기 전 단계에서 자발적 개선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LS ELECTRIC은 TSR 산정근거를 별도 표로 제시하며 기초·기말 주가와 주당배당금을 모두 공개했고, 5대 1 주식분할에 따른 수정주가 적용 사실까지 밝혔다. CJ는 각 사업연도말 증가를 각주에 병기해 투자자가 TSR을 직접 검증할 수 있게 했다.

그림 3. 현대차는 총주주수익률(TSR)과 별도로 총주주환원율을 병기

3-2. 이사·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이사의 보수 총액*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감사의 보수 총액**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영업이익	총 주주 수익률 (TSR)***
당기	6,042	1,208	-	-	5,365,574	68.6%
전기	22,627	4,525	-	-	11,467,851	44.6%
전전기	15,979	3,196	-	-	14,239,592	10.1%

※ 임원보수지급기준(성과 인센티브)을 기초로 계량지표로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의 사업실적 및 사업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함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총주주수익률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x 100

※ 당사 총주주환원율(Total Shareholder Return) 기준

- 당사 총주주환원율 목표는 '24.8월 CEO Investor Day에서 최초 발표하였으며, '25년 귀속연도부터 총주주환원율을 주주환원 목표로 최초 적용
- 산정방식 : { 배당총액 + 자사주 매입·소각액 } / 지배주주귀속순이익
- 당사 총주주환원율 : 당기 27%, 전기 35%, 전전기 30%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LS ELECTRIC은 TSR 산정근거를 별도로 제시

(3)-2. 이사·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이사의 보수 총액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감사의 보수총액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영업이익 (별도)	총 주주 수익률 (TSR)*	기타 지표
달기(2026)	12,029	2,406	-	-	305,087	159.3	-
전기(2025)	10,717	1,191	-	-	426,407	186.1	-
전전기(2024)	10,471	1,163	-	-	389,717	123.6	-

* 총 주주 수익률(TSR)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 100

사업연도	기초주가	기말주가	주당배당금	TSR	비고
달기(2026)	92,000	238,000	600	159.3	기초주가= 5:1 주식분할 수정가격 적용 2025 사업연도 배당기준일 : 2026.02.27
전기(2025)	160,800	460,000	-	186.1	2025 사업연도 배당기준일 : 2026.02.27
전전기(2024)	73,200	160,800	2,900	123.6	2024 사업연도 배당기준일 : 2024.12.31

주) TSR 산정에 활용한 지표의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초주가 : 직전 연도 말 최종거래일 종가
- ※ 기말주가 : 해당 기간 말 최종거래일 종가
- ※ 주당배당금 : 해당 보유기간 중 배당락 등으로 권리가 발생한 배당금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CJ는 각 사업연도말 증가를 병기해 투자자가 TSR을 직접 검증할 수 있게 공시

(2) 이사·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이사의 보수 총액*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감사의 보수총액**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영업이익	총 주주 수익률 (TSR)***	기타 지표
달기	3,253	1,084	178	39	992,440	-10.1	-
전기	6,517	2,172	333	83	2,527,738	76.9	-
전전기	8,619	2,873	342	86	2,532,252	8.2	-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 100

※ 영업이익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각 사업연도말 증가 2024년 12월 31일 99,100원, 2025년 12월 31일 172,000원, 2026년 6월 30일 154,700원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임원 보수와 연동

한국 공시 항목으로
CAP 추출 가능

앞서 정의한 한국형 CAP(보수총액 + 미지급 주식보상 시장가치)으로 대표이사 단위 시
계열을 만들 수 있는 기업 가운데, 3개 구간 TSR이 모두 양(+)이면서 CAP도 함께 증가
한 곳이 SK하이닉스와 두산에너지빌리티다.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보수총액은 1,986→4,239→26,095백만원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급여는 오히려 2,372→2,290→1,812백만원(반기)으로 줄었다. 당기 보수총액 26,095백만
원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4,379백만원, SARs 16,843백만원, PSU 537백만원 합계
21,759백만원이 주식연계 보상이다.

미지급 주식보상의 시장가치는 74,087주×2,650,000원=196,330백만원으로, 주가가 그대
로 보수 평가액에 반영된다. 고정급은 움직이지 않고 변동급만 증가를 따라간 구조로, 마
이크로소프트 차트가 드러내려는 관계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사 전체 기준으로도 주식기준보상 지급액이 0→2,805→5,330백만원
으로 늘고 급여는 3,026→3,171→1,617백만원(반기)으로 줄어 같은 구조를 보인다. 대표
이사 기준으로는 미지급 주식보상 시장가치가 3,436→16,525→18,566백만원으로 증가했
으며, 이는 각 사업연도말 종가 17,550원→75,300원→86,800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표 2. 임원 보수와 총주주이익률 추이 선진 사례

구분	SK 하이닉스			두산에너지빌리티		
	전전기	전기	당기	전전기	전기	당기
① 보수총액 (백만원)	1,986	4,239	26,095	5,654	6,047	7,738
미지급 주식보상 수량 (주)	72,315	72,315	74,087	195,768	219,457	213,899
각 사업연도말 종가 (원)	173,900	651,000	2,650,000	17,550	75,300	86,800
② 미지급 주식보상 시장가치 (백만원)	12,576	47,077	196,330	3,436	16,525	18,566
①+② (백만원)	14,562	51,316	222,425	9,090	22,572	26,304
총주주이익률 (%)	24.0	282.0	292.0	10.0	317.0	15.0

주) 전전기 2024년, 전기 2025년, 당기 2026년 반기. ① 보수총액과 ② 미지급 주식보상 시장가치, 미지급 주식보상 수량, 각 사업연도말 종가, 총주주이익률은
모두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과 「이사·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에 공시된 금액이며, ①+②는 두 공시 항목의 단순 합계다.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Ⅲ. 총주주수익률 vs. 총주주환원율

주가가 준 수익과 회사가 환원한 몫

총주주수익률
=주주가 얻은 총수익

총주주수익률(TSR)은 일정 기간 주주가 실제로 얻은 총수익률이다. 산식은 ‘(기말주가-기초주가+주당배당금)÷기초주가’로 주가 상승분과 배당을 함께 본다. 임원 보수 연동표에 이 지표가 들어간 이유는 분명하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말할 뿐 주주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TSR은 주주의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한다.

총주주환원율
=회사가 돌려준 몫

총주주환원율은 다른 지표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얼마를 주주에게 돌려줬는지를 보는 비율이다. 본 자료에서는 ‘(보통주 현금배당액+자기주식 소각액)÷지배주주귀속순이익’으로 산출했다. 3차 상법 개정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이전에는 자기주식 매입으로 환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각액을 반영했다.

총주주수익률(TSR)이 주가에 좌우되는 시장 지표라면, 총주주환원율은 회사가 결정하는 정책 변수다. 주가가 빠져도 배당과 소각을 늘리면 환원율은 올라간다. 다만 분모가 순이익이므로 이익이 줄어든 기업의 환원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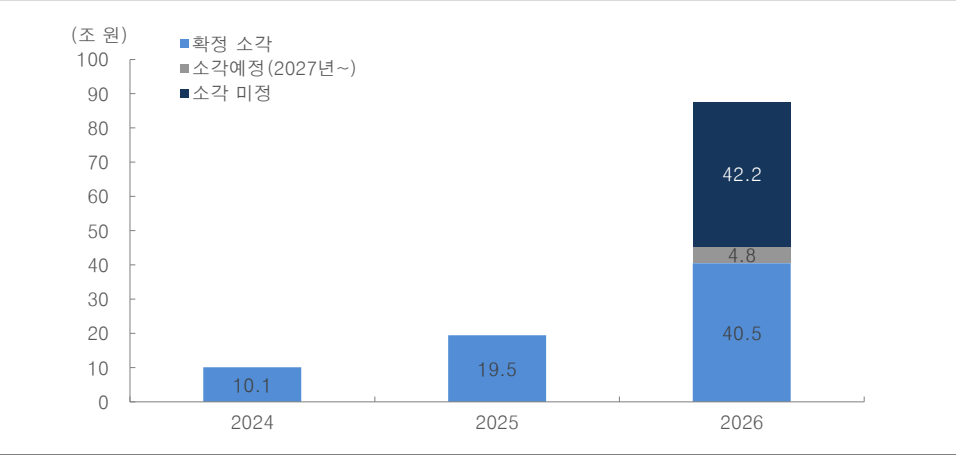
자기주식 소각 2년 만에 4배로 증가

올해 자기주식 소각
40.5조원은
전년도 전체
19.5조원을 상회

코스피 200의 자기주식 소각액은 2024년 10조 768억원에서 2025년 19조 4,791억원, 2026년 40조 4,863억원으로 늘었다. 2년 만에 4배다. 2026년 수치는 소각예정일이 2026년 중 도래하는 건으로 8월 21일 기준일 이후 소각 예정분 6,003억원을 포함한다.

여기에 더해 소각 결정은 공시되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47조 686억원 있다. 소각예정일이 2027년 1월 4일로 확정된 SK 4조 8,343억원과, 소각 결정 후 소각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은(‘-’으로 공시) 12개사 42조 2,343억원이다. 후자는 자기주식을 먼저 취득하고 취득 완료 후 소각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며 SK하이닉스가 2026년 8월 19일 공시한 40조 43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6. 코스피 200 자기주식 소각액은 2024년 대비 4배로 증가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소각 예정·미정 금액을 더하면 일부 기업의 환원율이 크게 바뀐다. SK는 2026년 환원율이 5.2%이나 2027년 1월 4일 소각이 확정된 4조 8,343억원을 반영하면 45.3%가 된다. SK하이닉스는 7.7%에서 23.5%로, KB금융은 79.2%에서 89.8%로, 하나금융지주는 36.8%에서 46.9%로 올라간다.

반대로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기업은 환원 규모가 커도 환원율이 낮아진다. 삼성전자는 2026년 배당 45조 1,567억원과 소각 5조 3,455억원을 합쳐 50조 5,022억원을 환원해 코스피200 최대 규모이지만, 지배주주순이익 추정치가 321조 738억원이어서 환원율은 15.7%에 그친다. SK하이닉스도 환원액 19조 3,944억원에 순이익 252조 6,213억원으로 7.7%다. 반도체 이익 급증이 분모를 키운 결과이므로 환원율 수치만으로 두 회사의 주주환원 의지가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3]은 코스피 200 기업의 2024~2026년 보통주 현금배당액과 자기주식 소각액, 지배주주순이익, 연도별 총주주환원율이다. 2026년 환원율은 8월 21일까지 공시된 내용만 반영한 값이다. 소각 예정 혹은 미정 47조 686억원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로 공시될 특별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4년 10조원에서 2년 만에 4배로 늘어난 추세와, 8월 21일까지 집행된 39.9조원만으로도 2025년 전체 소각액의 2배를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총주주환원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표 3. 코스피 200 기업의 총주주환원율

기업명	시가총액 (조원)	자기주식 소각(십억원)			보통주 현금배당액(십억원)			지배주주순이익(십억원)			총주주환원율 (%)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E	2024	2025	2026E	2024	2025	2026E
삼성전자	1,645.7	0	3,049	5,346	8,622	9,763	45,157	33,621	44,261	321,074	25.6	28.9	15.7
SK 하이닉스	1,263.8	0	0	12,240	1,520	2,095	7,154	19,789	42,919	252,621	7.7	4.9	7.7
SK 스퀘어	148.2	196	169	120	0	0	285	3,714	8,824	43,149	5.3	1.9	0.9
삼성전기	98.3	0	0	0	131	171	201	679	706	1,532	19.3	24.2	13.1
현대차	85.0	312	916	0	2,439	2,025	2,185	12,527	9,446	10,092	22.0	31.1	21.6
LG 에너지솔루션	80.4	0	0	0	0	0	0	-1,019	-1,073	-384	n/a	n/a	n/a
삼성바이오로직스	71.8	0	0	0	0	0	0	1,083	1,784	1,876	0.0	0.0	0.0
삼성물산	64.1	768	932	2,327	422	454	726	2,230	2,439	2,730	53.3	56.8	11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5.9	0	0	0	159	360	432	2,299	1,405	2,310	6.9	25.6	18.7
삼성생명	65.7	0	0	0	808	952	1,368	2,107	2,303	2,903	38.4	41.3	47.1
KB 금융	58.3	620	1,020	3,562	1,200	1,581	1,707	5,078	5,833	6,650	35.8	44.6	79.2
기아	51.1	383	668	0	2,559	2,642	2,679	9,773	7,561	8,548	30.1	43.8	31.3
HD 현대중공업	47.5	0	0	0	186	567	1,083	622	1,415	3,261	29.9	40.1	33.2
두산에너지빌리티	47.0	0	0	0	0	0	0	111	85	316	0.0	0.0	0.0
신한지주	48.9	450	900	2,000	1,088	1,246	1,432	4,450	4,972	5,891	34.6	43.2	58.3
현대모비스	45.0	163	622	500	540	580	637	4,056	3,656	4,128	17.3	32.9	27.5
셀트리온	44.7	176	328	1,815	154	164	171	423	1,030	1,581	78.1	47.8	125.6
SK	42.5	1,069	0	0	382	436	628	-1,293	1,597	12,068	n/a	27.3	5.2
삼성 SDI	38.5	0	0	0	65	0	0	599	-649	678	10.9	n/a	0.0
NAVER	34.8	687	368	1,017	168	394	400	1,923	1,953	1,959	44.5	39.0	72.3
하나금융지주	35.3	300	550	350	1,016	1,119	1,276	3,739	4,003	4,422	35.2	41.7	36.8
LG 전자	31.7	0	60	0	163	220	237	368	961	2,284	44.3	29.1	10.4
LS ELECTRIC	28.1	0	0	0	86	89	153	239	287	539	36.1	31.1	28.3

삼성화재	29.5	0	513	689	757	777	1,055	2,074	2,018	2,336	36.5	63.9	74.6
한화오션	25.8	0	0	0	0	0	214	528	1,246	1,969	0.0	0.0	10.9
HD 현대일렉트릭	25.9	0	0	0	193	256	325	502	733	956	38.4	34.9	34.0
효성중공업	25.4	0	0	0	47	70	93	223	520	777	20.9	13.4	12.0
고려아연	25.8	94	1,816	0	342	408	492	191	775	1,272	228.5	286.9	38.7
HD 한국조선해양	24.7	0	0	0	361	870	1,237	1,172	2,168	3,822	30.8	40.1	32.4
POSCO 홀딩스	24.6	754	420	635	757	756	797	1,095	658	1,876	138.1	178.9	76.3
우리금융지주	23.1	137	0	200	891	998	1,113	3,086	3,124	3,231	33.3	32.0	40.6
한미반도체	20.3	57	130	0	68	76	69	153	214	346	82.3	96.3	19.9
SK 이노베이션	21.1	794	0	0	295	0	423	-2,260	-3,348	2,841	n/a	n/a	14.9
SK 텔레콤	22.0	200	0	0	754	353	702	1,250	408	1,342	76.3	86.5	52.4
한국전력	20.4	0	0	0	137	990	517	3,492	8,545	4,400	3.9	11.6	11.7
미래에셋증권	19.3	166	175	634	110	131	351	922	1,570	3,490	29.9	19.5	28.2
HMM	20.4	0	2,143	0	529	660	589	3,782	1,878	1,797	14.0	149.2	32.8
메리츠금융지주	19.3	640	1,552	903	241	0	284	2,306	2,300	2,500	38.2	67.5	47.5
두산	17.5	0	20	0	27	54	71	-226	76	478	n/a	98.3	14.9
LG 화학	17.8	0	0	0	71	141	141	-691	-1,819	-339	n/a	n/a	n/a
삼성중공업	17.8	0	0	0	0	0	264	64	546	940	0.0	0.0	28.1
삼성에스디에스	17.6	0	0	0	224	247	253	757	760	701	29.6	32.5	36.1
KT&G	17.9	862	626	2,386	588	627	743	1,166	1,090	1,349	124.4	115.0	231.9
HD 현대	16.8	0	0	0	254	283	423	509	963	3,929	50.0	29.4	10.8
LG 디펜스앤에어 로스페이스	15.3	0	0	0	52	64	76	219	253	364	23.8	25.4	20.9
카카오	15.9	0	0	0	30	33	34	55	491	576	54.0	6.7	5.8
LG	16.3	0	250	250	469	469	522	575	737	1,192	81.6	97.5	64.8
S-Oil	15.9	0	0	0	14	37	500	-193	177	2,911	n/a	21.0	17.2
기업은행	15.9	0	0	0	849	836	880	2,645	2,711	2,794	32.1	30.8	31.5
현대글로비스	14.8	0	0	0	278	435	472	1,094	1,734	1,666	25.4	25.1	28.4
현대로템	14.2	0	0	0	22	65	76	407	770	895	5.4	8.5	8.5
포스코퓨처엠	13.8	0	0	0	0	22	22	-212	32	29	n/a	68.9	76.9
에이피알	14.4	0	90	0	0	191	203	108	290	584	0.0	96.8	34.7
한화시스템	13.3	0	0	0	65	93	76	454	242	146	14.4	38.6	51.9
LG 이노텍	13.0	0	0	0	49	44	56	449	341	924	11.0	13.0	6.0
KT	13.2	206	0	0	492	581	610	470	1,731	1,439	148.3	33.6	42.4
한국항공우주	12.7	0	0	0	49	49	69	172	186	251	28.3	26.2	27.4
현대건설	11.8	0	0	0	67	89	95	-169	373	520	n/a	23.9	18.3
현대오토에버	12.3	0	0	0	49	52	55	171	182	213	28.6	28.6	26.1
DB 손해보험	11.6	0	175	798	408	461	566	1,852	1,788	1,672	22.1	35.6	81.6
GS	10.8	0	0	2	251	279	318	567	799	2,519	44.2	34.9	12.7
삼양식품	10.3	0	0	0	25	36	46	272	389	565	9.0	9.2	8.2
한국금융지주	10.3	0	0	0	210	458	701	1,040	2,020	3,079	20.2	22.7	22.8
크래프톤	10.2	120	179	432	0	100	111	1,306	735	934	9.2	37.9	58.1
카카오뱅크	10.2	0	0	0	172	219	296	440	480	604	39.0	45.6	49.1
NH 투자증권	9.6	52	49	0	310	462	747	687	1,032	1,726	52.7	49.5	43.3
LS	9.2	0	86	109	45	68	83	237	271	651	19.0	56.9	29.6
삼성에피스홀딩스	9.0	0	0	0	-	0	0	-	85	237	n/a	0.0	0.0
삼성 E&A	8.8	0	0	0	129	155	166	757	617	740	17.1	25.1	22.4
대한항공	9.5	0	0	0	276	276	302	1,317	780	336	21.0	35.4	89.9
포스코인터내셔널	8.9	0	0	0	264	315	402	515	614	920	51.3	51.3	43.7
HD 현대마린솔루 션	8.9	0	0	0	141	177	243	228	270	351	61.9	65.7	69.1
삼성증권	8.2	0	0	0	313	357	612	899	1,007	1,718	34.8	35.5	35.6
한국타이어앤테크 놀로지	8.2	0	0	0	244	281	400	1,115	1,089	1,286	21.9	25.8	31.1
아모레퍼시픽	8.1	0	0	0	66	72	85	593	236	373	11.1	30.7	22.8
한화솔루션	7.2	0	0	0	51	0	52	-1,404	-650	333	n/a	n/a	15.5
이수페타시스	7.3	0	0	0	9	17	17	74	160	273	12.8	10.5	6.2
한진칼	7.9	0	0	0	24	24	0	497	155	-	4.8	15.5	n/a

하이브	7.2	0	0	0	8	21	33	9	-237	188	88.5	n/a	17.7
키움증권	7.0	65	187	145	178	298	492	835	1,114	1,841	29.1	43.5	34.6
LG 씨엔에스	6.9	0	0	0	146	179	196	365	438	472	40.0	40.9	41.5
대우건설	6.5	0	0	42	0	0	0	234	-912	564	0.0	n/a	7.4
SK 바이오팜	6.6	0	0	0	0	0	0	241	267	337	0.0	0.0	0.0
유한양행	6.6	0	25	462	37	44	44	71	194	165	52.2	35.8	305.8
코웨이	6.8	0	81	110	189	137	192	566	618	721	33.4	35.3	41.9
LG 유플러스	6.3	0	100	80	279	281	297	374	524	737	74.6	72.8	51.1
카카오페이	5.7	0	0	0	0	0	0	-14	45	128	n/a	0.0	0.0
한화	5.9	10	0	572	56	76	86	773	372	886	8.5	20.5	74.3
HD 건설기계	5.5	30	49	61	9	26	106	100	99	586	39.1	75.4	28.6
두산밥캣	5.6	0	200	0	159	163	180	563	402	562	28.2	90.2	32.1
대덕전자	5.2	0	0	0	20	25	25	24	48	230	83.2	51.9	10.7
대한전선	5.2	0	0	0	0	0	0	70	84	91	0.0	0.0	0.0
산일전기	5.0	0	0	0	13	38	50	84	149	214	15.3	25.5	23.4
OCI 홀딩스	4.9	59	30	0	41	19	27	98	-90	161	102.3	n/a	16.7
삼성카드	5.3	0	0	0	299	299	324	665	646	610	45.0	46.3	53.2
한미약품	5.3	0	0	0	16	25	25	121	170	206	13.1	15.0	11.9
오리온	5.0	0	0	1	99	138	157	525	383	477	18.8	36.2	33.2
JB 금융지주	5.0	20	100	85	190	213	240	678	710	745	31.0	44.1	43.7
가온전선	4.7	0	0	0	0	2	3	25	51	100	0.0	3.2	3.0
LG 디스플레이	4.8	0	0	0	0	0	0	-2,563	226	31	n/a	0.0	0.0
한화생명	4.8	0	0	0	0	0	87	737	641	723	0.0	0.0	12.0
NC	4.8	0	127	0	28	22	68	94	347	468	30.1	43.0	14.5
두산로보틱스	4.6	0	0	0	0	0	0	-37	-55	-	n/a	n/a	n/a
LG 생활건강	4.7	0	0	80	51	29	45	189	-100	233	27.1	n/a	54.0
BNK 금융지주	4.4	13	120	60	207	229	255	729	815	792	30.2	42.8	39.7
엘앤에프	4.3	0	0	0	0	0	0	-378	-534	-44	n/a	n/a	n/a
SKC	4.1	0	0	0	0	0	0	-443	-734	-276	n/a	n/a	n/a
DB 하이텍	3.9	0	0	0	51	34	58	229	256	391	22.0	13.3	14.9
현대해상	4.2	0	0	126	0	0	119	851	1,020	992	0.0	0.0	24.7
KCC	4.2	0	0	163	74	110	120	344	1,538	1,754	21.4	7.2	16.1
한화엔진	3.7	0	0	0	0	0	0	79	174	201	0.0	0.0	0.0
신세계	3.8	0	35	35	39	46	53	108	14	415	36.6	580.9	21.3
현대제철	3.6	0	0	0	99	66	73	-12	-7	109	n/a	n/a	66.7
한온시스템	3.5	0	0	0	0	0	72	-363	-199	255	n/a	n/a	28.1
한전기술	3.5	0	0	0	38	51	39	59	85	59	65.0	60.0	67.1
미래에셋생명	3.3	0	0	583	0	0	0	136	131	-	0.0	0.0	n/a
CJ	3.5	0	0	0	81	89	98	94	143	352	86.1	62.3	27.8
한국가스공사	3.3	0	0	0	127	101	179	1,147	133	1,117	11.1	75.7	16.0
일진전기	3.1	0	0	0	14	24	33	46	104	175	31.0	22.9	18.7
영원무역	3.3	0	0	0	60	89	150	427	492	605	14.0	18.2	24.8
한올바이오파마	3.0	0	0	0	0	0	0	-2	-6	-3	n/a	n/a	n/a
한국콜마	3.2	0	0	0	17	20	23	90	125	196	18.9	16.3	11.5
넷마블	3.1	0	0	405	34	72	80	26	225	493	133.3	31.9	98.5
포스코 DX	3.0	0	0	0	19	19	0	88	52	-	21.6	36.4	n/a
팬오션	3.1	0	0	0	64	80	95	268	301	470	23.9	26.6	20.2
강원랜드	3.1	0	0	0	234	188	219	457	318	312	51.3	59.2	70.2
GS 건설	2.8	0	0	0	25	42	49	246	94	151	10.4	45.4	32.1
한미사이언스	3.1	33	0	0	20	20	0	59	118	-	89.2	17.2	n/a
금호석유화학	2.9	179	102	107	51	38	76	349	291	548	65.9	48.3	33.3
서울보증보험	3.0	0	0	0	200	200	200	213	268	315	93.9	74.5	63.5
SK 바이오사이언스	2.9	0	0	0	0	0	0	-54	-57	-74	n/a	n/a	n/a
코스맥스	3.1	0	0	0	26	37	41	86	123	170	30.4	30.4	24.0
에스원	2.9	0	0	0	91	108	122	177	179	169	51.7	60.6	71.8
현대엘리베이터	2.8	0	0	0	199	506	313	183	262	165	108.4	193.0	189.5
달바글로벌	2.7	0	0	0	3	32	35	15	79	129	22.7	41.1	27.4

CJ 제일제당	2.8	0	0	0	88	88	94	132	-571	304	66.7	n/a	31.1
한화비전	2.6	0	0	0	0	0	0	11	46	191	0.0	0.0	0.0
DL 이앤씨	2.6	108	0	0	21	33	41	229	370	494	56.3	9.0	8.4
롯데쇼핑	2.7	0	0	0	107	113	124	-968	52	345	n/a	219.3	36.0
DN 오토모티브	2.6	30	11	0	52	52	79	285	282	408	28.9	22.4	19.4
IM 금융지주	2.7	0	80	40	83	112	120	215	444	480	38.7	43.3	33.2
효성	2.6	22	0	0	50	84	95	453	330	396	15.9	25.3	24.0
농심	2.6	0	0	0	29	35	38	157	170	208	18.4	20.6	18.1
신영증권	2.6	0	0	0	40	60	0	109	149	-	36.9	40.3	n/a
두산퓨얼셀	2.4	0	0	0	0	0	0	-10	-133	-90	n/a	n/a	n/a
에코프로머티	2.4	0	0	0	0	0	0	-43	24	-	n/a	0.0	n/a
코리안리	2.6	0	0	245	91	101	111	317	322	447	28.7	31.3	79.8
HL 만도	2.4	0	0	0	33	35	39	130	100	202	25.3	35.2	19.1
동서	2.6	0	0	0	88	112	0	157	145	-	55.8	77.6	n/a
에스엘	2.4	0	0	0	55	128	151	368	311	375	15.0	41.0	40.3
BGF 리테일	2.4	0	0	0	71	71	75	195	195	234	36.3	36.3	32.1
F&F	2.4	0	0	0	64	101	104	360	399	487	17.7	25.4	21.4
롯데케미칼	2.3	0	0	0	84	42	43	-1,711	-2,037	-180	n/a	n/a	n/a
NHN	2.5	50	22	17	16	15	17	-133	32	105	n/a	117.6	31.9
롯데지주	2.3	0	0	166	85	95	131	-1,019	-648	84	n/a	n/a	354.8
케이뱅크	2.3	0	0	0	0	0	0	128	113	117	0.0	0.0	0.0
한국엔컴퍼니	2.2	0	0	0	95	104	114	351	347	388	27.0	30.0	29.3
GS 리테일	2.2	0	0	0	42	50	57	3	43	225	1,640.1	115.4	25.5
풍산	2.2	0	0	0	71	46	65	236	147	297	30.1	31.6	22.0
한솔케미칼	2.2	0	0	107	23	28	32	123	147	168	18.9	19.2	82.4
미스트홀딩스	2.2	26	268	0	69	105	120	84	224	286	113.5	166.6	41.9
제일기획	2.2	0	0	0	125	125	146	208	208	224	60.0	60.0	65.2
영원무역홀딩스	2.2	0	14	112	62	76	0	334	368	-	18.6	24.5	n/a
금호타이어	2.1	0	0	0	0	0	0	325	347	407	0.0	0.0	0.0
현대이에프홀딩스	2.1	69	10	0	33	46	76	699	412	337	14.6	13.7	22.5
SK 가스	2.2	0	0	0	72	81	93	194	235	310	37.0	34.5	29.9
씨에스원드	2.0	0	0	0	41	41	40	142	35	186	29.1	119.4	21.4
현대백화점	2.0	69	0	65	31	46	47	-36	208	272	n/a	22.2	41.1
한전 KPS	2.0	0	0	0	111	74	93	172	124	149	64.4	59.8	62.0
이마트	2.0	0	37	0	54	67	74	-590	136	-3	n/a	76.5	n/a
아모레퍼시픽홀딩스	2.0	0	69	93	25	31	0	252	124	-	10.0	80.1	n/a
시프트업	1.9	0	0	10	0	0	0	148	191	137	0.0	0.0	7.4
대한조선	1.9	0	0	40	0	10	35	173	249	304	0.0	3.9	24.6
이수스페셜티케미컬	1.8	0	0	0	0	0	0	11	1	-	0.0	0.0	n/a
SK 이터닉스	1.7	0	0	0	0	0	0	22	31	29	0.0	0.0	0.0
HD 현대마린엔진	1.7	0	0	0	0	0	0	76	165	129	0.0	0.0	0.0
다우기술	1.7	0	0	10	60	78	0	356	505	-	17.0	15.4	n/a
CJ 대한통운	1.7	0	0	0	16	16	19	248	242	208	6.4	6.6	9.2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1.5	0	0	0	0	0	0	6	-158	-34	0.0	n/a	n/a
동원산업	1.7	0	0	0	44	51	55	75	367	387	57.9	13.8	14.2
호텔신라	1.7	0	0	0	0	0	8	-62	-173	115	n/a	n/a	6.8
현대위아	1.6	0	0	0	29	32	37	120	99	151	24.3	32.2	24.3
롯데렌탈	1.7	10	0	0	44	44	46	107	128	138	50.1	34.1	33.6
코오롱인더	1.5	0	0	0	36	36	50	99	38	229	36.3	93.4	21.7
HJ 중공업	1.5	0	0	0	0	0	0	5	51	181	0.0	0.0	0.0
HD 현대에너지솔루션	1.4	0	0	0	0	0	0	0	42	117	0.0	0.0	0.0
오리온홀딩스	1.5	0	0	0	48	66	0	161	121	-	30.0	54.7	n/a
코리아씨키트	1.3	0	0	0	0	2	2	-126	47	120	n/a	5.0	2.0
세아베스틸지주	1.4	0	0	0	39	39	43	20	56	100	190.4	68.6	42.7
LX 인터내셔널	1.5	0	0	0	72	72	88	176	142	271	40.9	50.7	32.4

녹십자	1.4	0	0	0	17	17	18	-26	-5	173	n/a	n/a	10.3
IPARK 현대산업개발	1.4	0	0	0	45	44	65	156	158	366	28.8	27.8	17.7
아시아나항공	1.4	0	0	0	0	0	0	-419	-283	-	n/a	n/a	n/a
SK 네트워크	1.4	77	0	109	58	48	58	48	50	117	283.4	97.3	142.1
LS에코에너지	1.3	0	0	0	6	8	8	31	42	54	19.4	18.2	13.9
대웅제약	1.4	0	0	0	7	7	7	25	196	185	27.9	3.5	3.8
효성티앤씨	1.4	0	0	0	43	43	44	135	11	267	32.1	400.8	16.4
케이씨텍	1.3	0	5	40	5	9	13	53	53	130	10.1	26.0	41.2
코스모신소재	1.2	0	0	0	0	0	0	18	-1	6	0.0	n/a	0.0
후성	1.3	0	0	0	0	0	0	-69	5	40	n/a	0.0	0.0

주) 총주주환원율 = (보통주 현금배당액 + 자기주식 소각액) ÷ 지배주주귀속순이익 × 100. 자기주식 소각금액은 소각예정일 기준으로 연도를 배분했으며, 2026년은 소각예정일이 2026년 중 도래하는 건. 순이익이 0 이하이거나 결측인 기업은 n/a로 표기. 시가총액은 2026년 8월 21일 종가 기준.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4. 2026년 소각 예정·미정 금액을 반영할 경우, 총주주환원율이 변화하는 기업

기업명	시가총액 (조 원)	소각금액 (십억원)	현금배당액 (십억원)	총주주환원율 (%)	예정·미정 금액 (십억원)	반영 후 총주주환원율(%)
SK 하이닉스	1,263.8	12,240	7,154	7.7	40,004	23.5
KB 금융	58.3	3,562	1,707	79.2	700	89.8
SK	42.5	0	628	5.2	4,834	45.3
하나금융지주	35.3	350	1,276	36.8	450	46.9
우리금융지주	23.1	200	1,113	40.6	150	45.3
KT&G	17.9	2,386	743	231.9	300	254.2
KT	13.2	0	610	42.4	500	77.1
JB 금융지주	5.0	85	240	43.7	100	57.1
IM 금융지주	2.7	40	120	33.2	30	39.5

주) 소각금액은 소각예정일이 2026년 중 도래하는 확정분이고, 「예정·미정」은 소각 결정은 공시됐으나 소각예정일이 2027년 이후로 확정됐거나(SK, 2027년 1월 4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 「반영 후 환원율」 = (2026년 현금배당액 + 2026년 소각금액 + 예정·미정) ÷ 2026년 지배주주순이익 × 100.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이경연)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